전남매일

www.jndn.com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제8709호 (음력 8월 4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현대아미스(주)
공동주택관리 | 경비·청소 용역 | 소방시설관리
소독·저수조청소 | 전기안전관리 대행

이낙연 승부수 1차 슈퍼위크 먹힐까

의원직 사퇴 배수진 효과 주목
이재명 대세론 극적 반전 의문
12일 발표…향후 경선 가늠자

더불어민주당 충청 지역 순회 경선에서 패한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 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정권 재창출' 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진정성이 투표로 얼마나 반영될지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8일 광주시의회 에서 열린 호남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뤄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진 빚을 갚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카드는 지난 주말 충청권 경선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후 고육지책 이자 최후의 카드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주말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승패의 바로미터인 오는 25일과 26일 호남경선에 반전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국회의원 5선, 전남지사,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까지 역임한 이 후보의 의원직 사퇴 선언은 곧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만큼 비장함도 느껴지지만 현재 처한 상황을 대변하고 남는다.

문제는 승부의 분수령 이자 최대 승부처인 1차 슈퍼위크와 호남경선을 비롯한 나머지 순회 경선에서 의원직 사퇴 효과가 어느 정도 일지가 관건이다.

이낙연 후보는 당장 이번 주말 1차 수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를 막으며 격차를 상당부분 줄이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달 말 진행되는 호남권 투표와 2차, 3차 슈퍼위크에서 결집을 통한 '막판 뒤집기' 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의원직 사퇴 카드' 가 향후 이 전 대표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수진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의 '대세론' 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의견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호남 지역이 마지막 승부처이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지만 극적인 반전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격차를 좁힐 수는 있겠지만,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 정도로 큰 득표를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충청권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이재명 후보는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차 슈퍼위크에서 충청권에서와 같은 과반을 기대하면서도 상당한 표 차이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지난 8일 시작됐다.

1차 국민선거인단의 규모는 약 64만 명으로, 70만명에 달하는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규모와 맞먹는다. 이 때문에 국민선거인단의 표심이 초반 경선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기존 대의원·권리당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지역 순회경선과는 별개로 일반 당원,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총 3차례에 걸쳐 모집, 투표를 진행하는데 현재 1차 64만1,922명, 2차 49만6,339명이 모집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3차 국민선거인단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4~5일 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에서 진행된 순회경선 에서 이재명 후보가 총 2만1,047표(54.72%)를 얻어 1위를, 이낙연 후보가 1만841표(28.19%)로 2위를 기록했다. 두 사람 간 득표율 격차는 26.43%로 표차는 1만206표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차 슈퍼위크 결과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경선과 달리 일반당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당원 규모를 크게 능가하기 때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1차 슈퍼위크 결과를 보면 향후 경선 결과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기후위기 에너지 대전환 대한민국 100년 달렸다"

대선 예비후보에 듣는다

〈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9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광주·전남 최대 현안이 돼야 한다"면서 "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주도 하느냐에 따라 광주·전남 100년은 물론 대한민국 100년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전남의 비전은 전환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산업재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공약은 균형발전과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이라며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광주의 AI 등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을 강호축에 배치해 호남권이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AI·문화 스마트 융합도시가 발전의 큰 방향이 될 것이고 전남과 전북의 경우 지형적 특성에 부합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총괄 메카로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구나 동등한 기회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 보장받는 사회 만들터"

이 후보는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을 만드는것"이라며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공정한 세상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 에이스 페어 VR 체험 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1 광주 에이스 페어' 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장 등 참석자들이 메타버스 주제관에서 VR 체험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한국섬진흥원 일방적 인사 볼멘소리

목포 출신 인사 배제 지자체와 협의 없어

목포에 들어서는 한국섬진흥원의 초대 이사장과 원장이 선임됐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식 인사에 대한 지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세종시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당연직 2명과 임의직 4명으로 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앞서 이달 초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 초대 이사장에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 초대 원장에 오동호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임명했다.

정순관 초대 이사장은 1998년부터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오동호 원장은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한 이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등을 거쳤다.

이사진에는 정순관 섬진흥원 초대 이사장을 비롯해 김명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 박홍균 순천대 무역학과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포진됐다.

섬진흥원 조직은 이사장과 원장, 경영지원실, 기획연구실, 사업운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추가 50명의 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섬진흥원의 인적 구성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나 인사가 배제된 채 진행돼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대한민국 섬 정책의 중심지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올인했던 전남도와 목포시는 선정 이후 이사장이나 원장,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행안부로부터 협의는 커녕 인사 결과도 뒤늦게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목포시 유치에 적극 협조했던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한국섬재단 등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9일 "이사장이나 원장, 이사진 선임은 중앙부처의 고유 업무다"며 "다만 섬진흥원이 들어선 목포지역과 목포대 출신이 빠진 점에서 서운하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당목·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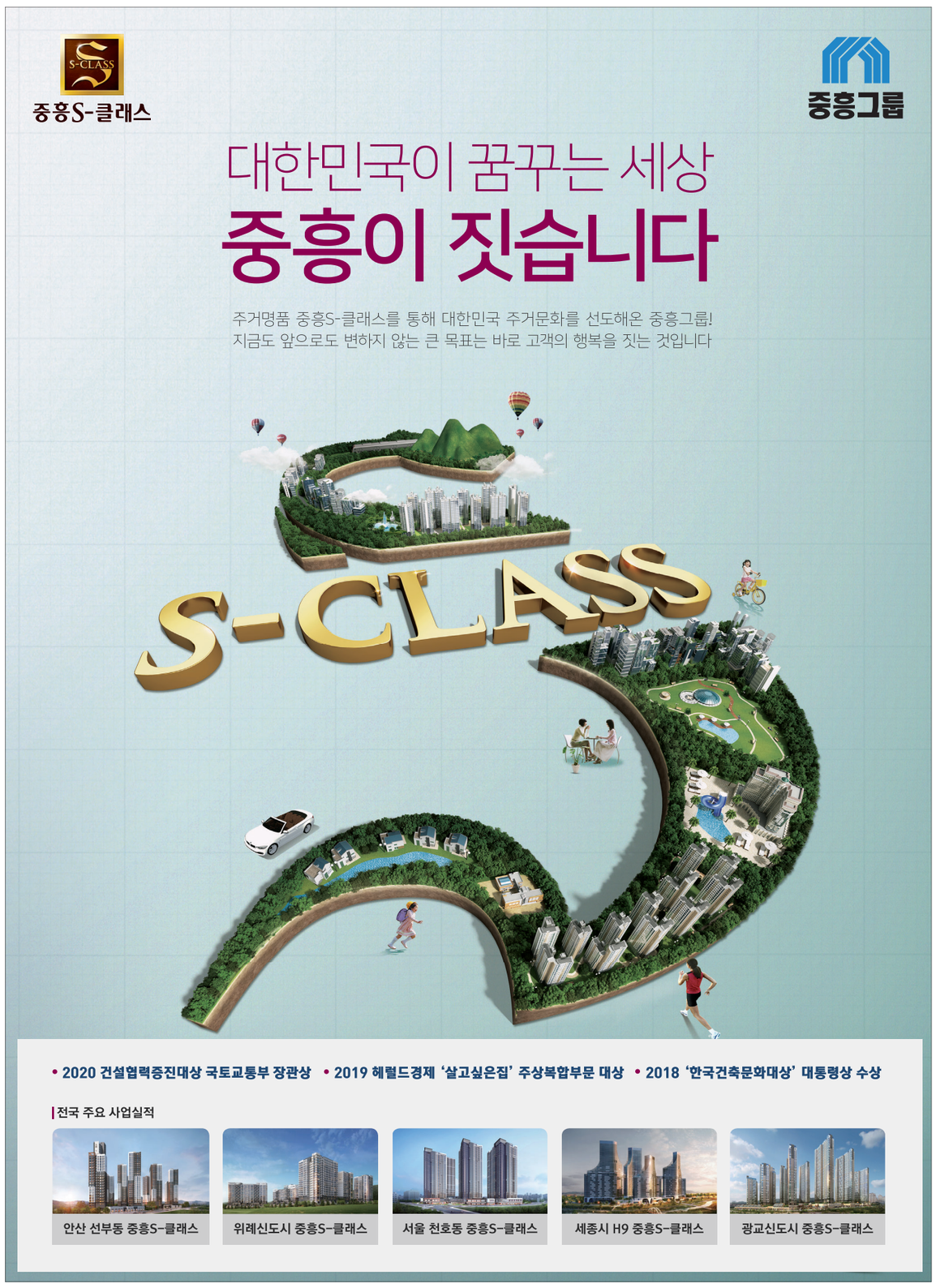
전남도는 완도 당목항, 영광 향화도항이 충남 태안 영목항과 함께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어항은 어획물의 인양, 위판, 출어 준비 및 어선 피난 등을 위한 항구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으로 구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개정한 '국가어항 지정기준' 에 따라 어선 이용 빈도, 어항 방문객 수, 배후인구 규모 등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 인정된 전남 2개소를 포함해 전국 3개소를 9월 1일자로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했다.

완도 당목항과 영광 향화도항은 그동안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미비해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불편이 있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모 있는 투자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항 현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어선 정박 등 전통적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해양관광 및 레저 기능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완도 당목항은 40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해권 수산 거점이자, 인근 금일도, 평일도를 잇는 해상교통·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한다.

영광 향화도항은 4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남해권 대피어항이자, 인근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를 잇는 해상교통·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한다. /길용현 기자